

장애아동 가족의 수입, 내구력, 누적 스트레스, 의사소통, 가족적응에 대한 구조모델검증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Test of a Structural Model of Family
Income, Hardiness, Pile-up Stress, Communication, and Family Adaptation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오승아

Dept. of Education Graduate, Sungkyunkwan Univ.
Lecturer : Oh, Seung Ah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a structural model about family income as causally related to family hardiness, pile-up stress, communication, and family adaptation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250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d as subjects. The models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mpared us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LISREL). Adequate fitness of the model was observed. Family income showed negative effect on pile-up stress and positive effect on family adaptation. Pile-up stress showed negative effect on family hardiness. Family hardiness showed positive effect on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communication showed positive effect on family adaptation.

주제어(Key Words): 복원모델(resiliency model), 가족 내구력(family hardiness), 가족 적응(family adaptation)

I. 서론

장애아동의 장애는 아동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활과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스트레스원이나 위험원이다. 장애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을 수반하게 되고 가족에게 많은 적응과 대처를 요구하며 가족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zak & Marvin, 1984; McCubbin, McCubbin, & Thompson, 1991). 그러한 영향은 빈번히 심각한 혹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킨다(Failla & Jones, 1991). 장기간 경험한 복잡한 스트레스원은 큰 긴장과 중압감을 야기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가족대처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윤이화, 1997; Kosciulek, McCubbin & McCubbin, 1993).

그러나 최근 급격히 증가된 연구경향은 장애아동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결과가 가족에 따라 다르고, 높은 스트레스나 위기에 모두 부적응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위기에 나름대로 대처하며 적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연구들은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해 수반되는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가족들이 만회하거나 맞서서 저항하도록 하는 가장 주된 상호작용과정을 확인하고 공고히 하면서 아울러 위기나 난관에서도 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을 이끄는 기제와 과정을 밝히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Hass, 1990; McCubbin & McCubbin, 1993; McCubbin, McCubbin, Thompson & Thompson, 1998; Mooradian & Grasso, 1993).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의 '부적응'이나 '실패'에 초점을 두었던 종래의 관점을 '적응'이나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준 것이 가족 복원력이라는 개념의 대두이다. 가족 복원력이란 역경을 딛고 회복하는 능력이며 위기와 난관에서도 인내하고 자체적으로 복원하여 성장까지 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다(Walsh, 1998). 가족 복원과정은 긍정적인 가족 기능으로 대변되는 긍정적인 가족 적응 혹은 성공적인 가족 적응을 강조하면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변인들 혹은 촉진시키는 보호요인과 악화시키는 취약요인간의 상호작용과정이다.

오랫동안의 관리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장애와 같은 위험원이 있는 가족의 경우 더욱 필요한 반응이 가족적응이다(McCubbin & McCubbin, 1993). 장애아동 가족의 적응은 장애아동의 특성(스트레스원의 특성),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나 가족 내구력과 같은 가족 자원, 가족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태도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Hamner &

Turner, 1985, 재인용),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변인들의 총체적인 관계구조를 검증함으로써 규명될 수 있다(McCubbin & McCubbin, 1993). 그러나 이제까지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결과와 관련 요인들간의 부분적인 관계성만을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가족 복원력에 초점을 둔 연구는 없었으며 단지 복원력개념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가족의 내적 강점만을 다룬 윤이화(1997)의 연구정도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에 대한 가족의 반응의 차이를 고려하고 그러한 반응의 결과로서 긍정적인 혹은 성공적인 적응과 관련된 가족복원력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적응적, 긍정적인 속성인 가족복원력과 관련된 가족체계의 특성을 강조하고 가족복원력과 관련된 가족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가족 내구력, 가족 수입, 가족의 누적 스트레스, 가족 의사소통과 같은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족 복원력의 결정적인 변인을 밝혀 이후 가족 중재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육성하여 위험원이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 역기능이나 부적응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장애아동이라는 가족의 위험원에 대한 가족 적응현상을 가족스트레스이론의 최신이론인 가족스트레스, 조절 및 적응에 대한 복원모델(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McCubbin & McCubbin, 1993)을 토대로 하여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를 탐구해 볼 것이다.

1. 가족스트레스, 조절 및 적응에 대한 복원모델

복원모델은 Hill(1949: 1958)의 연구에 기초해서

McCubbin과 Patterson(1981)이 The Double ABCX Model로 확장 시켰고, Typology Model of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McCubbin & McCubbin, 1987; 1988; 1989)으로 발전되어 지금의 가족스트레스, 조절 및 적응에 대한 복원모델(McCubbin & McCubbin, 1993)이 나오게 되었다. 이제까지 국내 문헌에서는 "Double ABCX Model"을 기초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다(정청자, 1989; 이경희, 1992; 이양희, 1993; 오승아, 1994). "Double ABCX Model"을 기초로 한 연구들은 스트레스 원이나 방어자원을 이용하는 가족의 노력들, 가족의 상황에 대한 평가, 스트레스 원을 다루는 동안 가족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의 대처유형과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두어 왔다. 반면에 복원모델은 가족의 조절(adjustment)보다는 가족의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McCubbin & McCubbin, 1993; McCubbin, Thompson, Thompson & McCubbin, 1994; 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6; McCubbin, McCubbin, Thompson & Thompson, 1998).

일종의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원인 장애가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족위기가 될 때, 적응단계가 시작된다. 가족 조절단계와 마찬가지로 가족 적응단계도 많은 상호작용 요소들로 결정된다. 질병에 따른 가족체계나 체계내 요구들의 누적(AA), 가족생활주기 변화,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은 가족의 재생력(R)과 상호 작용한다. 재생력(R)은 새로운 가족기능패턴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고, 정립된 기능패턴에 의해 계속 유지된다.

재생력요소들은 지역사회 친구들(BBB)과 가족들에 의해 지원되거나 가족평가에 의해 지지되는 강점과 능력 같은 가족자원들(BB)과 상호 작용한다. 상황적 평가(CC)는 가족의 자원과 상황에 따른 요구간에 관계에 대한 지각으로 형성된다. 위기상황에 대한 상황적 가족평가(CC)는 가족이 어떤 상황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는 가족 기능의 일관성이나 세계관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 즉 가족의 가치, 목표, 우선 순위, 그리고 규칙들과 같은 가족의 쉼마(schema)(CCC)와 상호 작용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장애에 대한 가족의 의미를 창조하고 변화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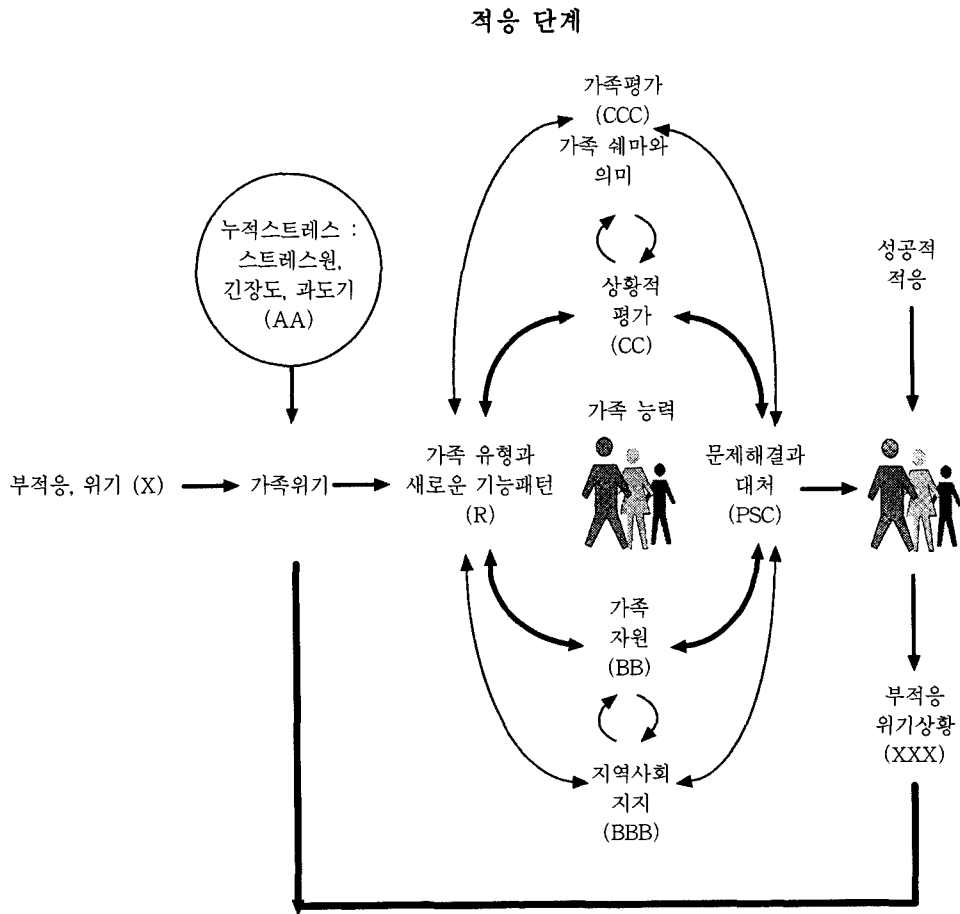
호작용을 낳는다. 자원과 평가요소는 위기상황에 대한 가족적응을 쉽게 하는 가족의 문제해결과 대처전략 목록들(PSC)과 상호 작용한다(McCubbin & McCubbin, 1993; 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6; McCubbin, McCubbin, Thompson & Thompson, 1998).

복원모델은 장애아동의 존재와 같은 위험원을 둔 가족들의 적응수준이 적응단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며 특히 성공적인 적응(XX)은 가족고유의 내적 자원과 능력(BB), 가족의 관계망 지지(BBB), 가족평가를 통한 가족의 쉼마와 가족의 문제해결 대처능력(PSC)과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장애아동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최근 장애아동의 장애가 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족기능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장애아동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Beckman & Pokorni, 1988; Chetwynd, 1985). 연구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각기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의 기본 전제는 장애아동 가족이 정상아동 가족에 비해 많은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다(정재은, 1993; 문정희, 1995; 윤이화, 1998; 정원미, 1994; Bristol, 1987; Friedrich & Friedrich, 1981).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자녀의 장애라는 스트레스는 갈아도 지각되는 스트레스 수준은 여러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반응 역시 부적응에서 긍정적인 적응까지 다양하다. 더구나 같은 가족내에서도 장애아동이 미치는 영향은 그 하위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Kazak, 1986), 상황적 맥락에 의해 변화되기도 한다(Trute, 1990).

몇몇 연구들에서는 아동변인이나 부모 변인과 같은 변인들은 대부분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중재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관심을 두게 된 것이 가족변인과 가족의 변인을 중심으로



〈그림 1〉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적응단계)

출처 : McCubbin, M. A. & McCubbin, H. I. (1993)

로 장애아동가족의 긍정적인 결과와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변인들에 대한 검증이다. 예를 들면 가족스트레스나 가족긴장도는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취약성으로 작용한다(윤이화, 1997; Koscileuk, McCubbin & McCubbin, 1993). 즉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가족 긴장도로 측정된 누적스트레스와 가족적응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의 누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가족의 누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의 적응도는 낮아지며 결론적으로 가족의 누적스트레스는 가족적

응에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밝혀주었다.

가족의 복원모델에서 명백히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장애아동 가족의 적응과 아주 상관이 높은 또 다른 변인이 가족 수입이다.(McCubbin & McCubbin, 1998). 가족 수입은 재정적 자원 일종의 가족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아동의 상태는 만성적인 상태가 일반적이므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며 아울러 그 기간동안 필수적으로 장애아동의 자립과 적응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 그 예로서 정원미(199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스트레스정도와 가족 월평균 수

입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족의 수입이 적을수록 스트레스정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가족수입이 많을수록 가족 내구력, 가족 적응도는 높아지고 누적 스트레스는 낮을 것이다.

H2: 가족의 누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 적응도는 낮을 것이다.

3. 가족 내구력

가족자원의 수나 양은 가족의 강점(strength)과 능력들(capabilities)을 좌우한다. 가족자원에는 개인 자원과 가족체계자원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족체계 자원에 대한 연구들은 과거 10년동안 강도 높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사회행동주의자들은 건강하고, 정상적이며, 취약하지 않으며, 복원력이 있고, 잘 기능하는 가족들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족내구력은 가족체계자원중의 하나이다. 가족내구력은 장애아동이나 만성적 질병아동을 둔 가족 그리고 아동방임가족과 같은 위험원 가족의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원이다(Huang, 1996; Kobasa, 1979; Kobasa, Maddi & Kahn, 1982; McCubbin, Thompson, Thompson, Elvet & McCubbin, 1994; Smith, 1998; Vansolkema, 1997). 가족의 내구력은 특히 가족단위, 가족체계에서의 내적 강점과 영속성과 관련되고 생활사건의 결과와 난관을 제압하고, 오히려 변화를 이점이 되게 하고 성장을 가져오며, 긴장이 많은 상황을 다스리고 적응하는데 수동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는 통제력이다(McCubbin, 1989; 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6).

가족내구력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제공해준 Kobasa(1979)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영향력이 있는 중재요인의 하나로 내구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Kobasa, Maddi와 Kahn(1982)은 내구력이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효과나 신체적인 긴장상태를 피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자신과 환경을 통제하고 상황에 따라 위협에 대처하며 적응해 나간다고 하였다.

가족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서의 가족내구력을 지지해주는 연구들은 장애, 만성적 질병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가족적응과 가족내구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탐구와 가족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특히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적응의 가장 결정적인 변인으로서 가족 내구력이 지지되었다(오승아·이양희, 2001; Failla & Jones, 1991; Huang, 1996; Kosciulek, McCubbin & McCubbin, 1993; Pollock, 1986, 1989b; Vansolkema, 1997).

가족의 힘과 오래 건디는 능력으로 가족단위와 그 구성원들에게 부여되는 요구들을 완화시키는 것을 돕는 가족 내구력은(Failla & Jones, 1991) 가족 스트레스, 대처, 가족 기능을 가장 잘 예언해주는 직접적인 변인으로(Huang, 1996; Vansolkema, 1997), 혹은 가족의 누적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가족의사소통 같은 대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오승아·이양희, 2001; McCubbin, Thompson, Thompson & McCubbin, 1994)나타났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가족내구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3: 가족의 누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 내구력은 낮을 것이다.

H4: 가족 내구력이 높을수록 가족 의사소통수준은 높을 것이다.

4. 가족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대처기술의 활용력은 가족의 장애나 질병에 대한 관리능력을 지적해 준다. 가족문제해결과 대처는 스트레스 원을 관리 가능한 요소로 조직하는 가족의 능력이고 각 요소들을 다루기 위한 대안적인 행동의 과정을 확인 시켜주고, 개별성원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인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의 문제해결 노력에 필요한 의사소통 양식을 발전시키고 다듬는 가족의 능력이다(McCubbin & McCubbin, 1989; Kosciulek, McCubbin & McCubbin, 1993; McCubbin, Thompson, Thompson, Elver & McCubbin, 1994).

대다수의 가족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문제해

결과 대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의사소통이다. 가족에 대한 상호작용적 접근에서 의사소통은 가족집단의 구성, 유지, 발전과 가족적응과 관련이 있다. 즉 가족은 의사전달과정을 통해 주위환경과 관계를 유지하는 역동적인 체계라고 보며 가족이 적응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이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 것이다(이영희, 1987). 감정이입, 지지적인 반응 등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기술은 가족이 각자의 요구변화를 공유토록 하며 이를 통해 가족의 적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사소통기술은 가족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을 최소화하며 가족의 결속 및 적응력의 차원으로의 이행을 억제한다(Olson, Russel & Sprenkle, 1983; 김영민, 1992).

선행연구들을 통해 의사소통은 가족적응을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Olson, Russel & Sprenkle, 1983; McCubbin et al, 1994; Smith, 1998), 가족 역기능을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인으로 도출되기도 하였다(McCubbin, Thompson, Thompson, Elver & McCubbin, 1994). 또한 가족의 저항자원으로 결합되며, 양성되어서 가족내구력이나 가족세마와 인과적 관계를 성립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가족의 의사소통이 이들 변인으로 하여금 가족복원력의 촉매적 역할을 하도록 결합되어졌다(McCubbin, Thompson, Thompson, Elver & McCubbin, 1994; Thompson, McCubbin, Thompson & Elv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의사소통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5: 가족의 의사소통수준이 높을 수록 가족적응도는 높을 것이다.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1. 연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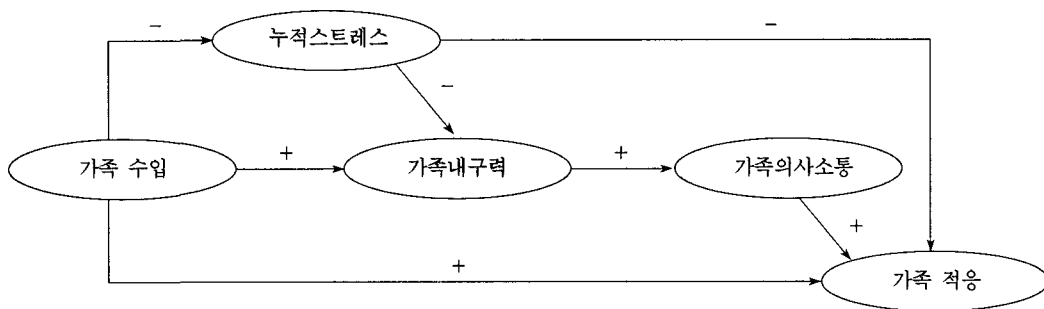
이상에 설정한 가설들을 통합하여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소재 장애인 복지관 10개소와 조기 치료교육기관 6개소에서 치료교육중인 장애아동을 둔 250가족이다. 조사는 대상 아동의 치료 및 교육시간 동안 보호자 대기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치료 및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나 치료사가 직접 질문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한 후 당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설문지 배포 전에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담임교사나 담당치료사의 협조를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한 아동의 평균연령은 6세이며, 남아가 70.8%로 여아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진단명으로는 광



<그림 2> 이론적 모델

범위성발달장애가 37.6%, 정신지체가 21.2%, 의사소통장애가 15.2%, 발달성 근육운동조정장애가 11.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의 연령은 30대가 7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평균연령은 37세이다. 부의 학력은 대졸이상 74.8%, 고졸은 24.4%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임을 알수 있다. 모의 연령은 30대가 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은 34세이다. 모의 학력은 대졸이상 52%, 고졸은 46%로 고졸이상이 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의 직업은 회사원과 같은 사무직 종사자가 42.8%, 자영업자가 31.6%, 의사, 변호사, 교수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8%, 공무원이 6.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모의 직업은 주부 9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족형태는 대부분 핵가족(84.8%)이었고, 자녀수는 평균 2명이었다. 가족수입은 100-200만원이 54%, 200-300만원이 22.8%, 300만원이상이 1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조사 도구

(1) 가족의사소통: 가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FPSC)

가족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McCubbin, McCubbin과 Thompson(1988)이 개발한 FPSC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문항의 타당화과정을 거쳐 간략형으로 수정한 오승아, 이양희(1999)의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2 (Cronbach's α)였다. 4점 Likert척도이다. 하위척도별 문항수는 확인적 의사소통I(FPSC1)은 4문항(문항 예: 우리는 해결점을 찾을 때 까지 이야기 한다), 확인적 의사소통II(FPSC2)은 3문항(문항 예: 우리는 각자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이었다. 하위척도별 내적일치도는 각각 .81, .79(Cronbach's α)였다.

(2) 가족적응: 가족 애착과 가변성 척도(Family Attachment and Changeability Index 8: FACI8)

FACI8은 McCubbin, Thompson과 Elver(1995a)가 가족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응집력과 적응력 척도 II(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Olson et al., 1978)를 재구성한 FACE II A

를(McCubbin & McCubbin, 1996) 다시 재구성하여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승아, 이양희(1999)가 번안하여 간략형으로 수정한 총 13문항이 사용되었다. 전체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5였다. 하위척도별 문항수는 결속(FACI1)은 6문항(문항 예: 가족들은 가족전체로서 일을 하기보다는 편을 가른다), 융통성(FACI2)은 4문항(문항 예: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절충하여 처리 한다), 응집성(FACI3)은 3문항(문항 예: 우리 가족 모두는 책임을 공유한다)이고 하위척도별 내적 일치도는 각각 .71, .78, .74(Cronbach's α)이었다. 5점 Likert 척도이다.

(3) 가족내구력: 가족 내구력 척도

(Family Hardiness Index: FHI)

가족 내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McCubbin과 McCubbin 그리고 Thompson(1986)에 의해 고안된 FHI를(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6) 번안·역번안한 후 예비조사를 통한 타당화 과정을 거친 오승아, 이양희(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분석결과와 내적 일치도는 .85였다. 각 하위척도별 문항수와 내적 일치도는 도전(FH1)은 5문항(문항 예: 우리는 서로의 문제나 상처 그리고 두려움에 귀를 기울인다), .85(Cronbach's α)이고, 통제(FH2)는 3문항(문항 예: 또 다른 문제가 닥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리란 느낌이 들지 않는다), .72 (Cronbach's α), 책무(FH3)는 3문항(문항 예: 결국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만큼 좋은 일도 일어난다), .64(Cronbach α)이었다.

(4) 누적 스트레스: 가족 긴장도 척도

(Family Strains Index: FSI)

가족의 내부적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가족 긴장도를 평가하기 위해 McCubbin, Patterson과 Wilson(1983)이 가족의 누적된 생활사건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개발한 가족생활사건 척도(FILE)를 총 10문항으로 간략화한 도구이다(McCubbin, Thompson & McCubbin, 1996). 본 연구에서는 누적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번안 또는 역번안하여 타당화 과정

을 거쳐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으로 응답자들은 "예 또는 아니오"에 답하게 되며, 문항분석을 거쳐 간략화한 총 8문항이(문항 예: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사용되었고 내적 일치도는 .77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모델검증을 위해 변인들의 하위요인을 측정변수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이 실시되었다. 최종적으로 모델검증을 위해서 LISREL 8.0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의 목적은 탐색적 요인분석 혹은 요인분석의 결과로 정의된 하위척도(측정변수들)와 가족 내구력, 가족 의사소통, 가족 적응, 누적스트레스, 가족 수입(연구변인 혹은 잠재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측정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모델 검증결과 좋은 모델이란 실체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그럴 듯한 모델을 말하는 것인데 간명하면서 결과변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합도 평가와 간명도가 모델을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 부합도 평가에 있어 이상적인 결과는 전반적인 부합도,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 고정지수(T-value, T값), 표준 오차행렬, 다중상관치들의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 전반적인 부합도지수에는 카이 자승치(χ^2)와 그의 확률치(P-value), 개략화 오차평균(RMSEA), 기초합치도(GFI), 조정합치도(AGFI), 비표준합치도(NNFI), 표준합치도(NFI), 그리고 비교합치도(CFI) 등이 있다. 이들 합치도가 .9이상이면 좋은 합치도이며, RMSEA의 경우에는 .05이하 .08이하까지가 좋은 합치도임을 나타낸 준다. 카이자승치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전반적 부합도를 검토한 후 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로 하는 부합도가 세부적 부합도 지수이다. 세부적 부합도에는 모형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수정지수(MI, 추가지수)와 모형을 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정지수(T-value, T값), 그리고 어떤 측정변수의 측정을 개선하거나 모형에서 제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중상관제곱치(SMC)가 있다. 수정지수가 보통 5-10을 초과할 때 수정가능한 후보가 된다.

T값은 절대치가 "2"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이론상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자유모수를 "0"으로 고정시키거나, 관계를 끊을 때 전반적 부합도의 변화가 과연 유의하지 않은지를 살펴본다. 모든 수정지수들이 5에서 10을 초과하지 않는 작은 숫자이고 고정지수가 "2"이상 크며, 오차행렬의 모든 원소들의 값이 작으면 모델이 자료에 잘 맞음을 의미한다. 측정변수에 대한 다중상관치 및 측정모형에 대한 결정계수가 높으면 좋은 측정변수가 사용되었으며 측정구조가 잘 가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내생변수에 대한 다중상관치 및 이론 모델에 대한 결정계수가 높으면, 그 내생변수가 충분히 좋은 예측 변수를 가지고

<표 1> 측정모형의 전반적 부합도

(N=250)

모델	df	χ^2	χ^2/df	RMSEA	GFI	CFI	NFI	NNFI
모델	45	95.37	2.11	0.06	0.94	0.98	0.96	0.97

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개략화 오차평균, GFI(Goodness of Fit Index): 기초 합치도, CFI(Comparative Fit Index): 비교 합치도, NFI(Normed Fit Index): 표준 합치도, NNFI(Non-Normed Fit Index): 비표준 합치도.

<표 2> 측정모델의 모수

잠재변인/ 측정변수	추정치	표준화 계수	다중상관 제곱치(SMC)	T값(T- Value)
가족내구력				
FH1	0.42*	0.03	0.64	12.43
FH2	0.31*	0.04	0.72	7.80
FH3	0.26*	0.04	0.68	6.62
가족 의사소통				
FPSC1	0.41*	0.03	0.68	13.55
FPSC2	0.46*	0.04	0.59	12.58
가족 적응				
FAC1I	0.51*	0.04	0.67	14.11
FAC3I	0.58*	0.04	0.76	16.15
FAC4I	0.53*	0.04	0.59	13.32
누적스트레스				
FSTR1	0.15*	0.02	0.59	6.85
FSTR2	0.17*	0.03	0.67	6.58
FSTR3	0.19*	0.02	0.69	7.88
가족 수입	1.65*	0.08	1.00	21.16

* p < .001

있으며 이론 모델에 이론변수들이 충분히 표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의 간명도는 자유도가 높은 것과 비례한다(이순목, 1990).

다음은 이론적 모델인 <그림 2>에 대한 측정모델의 검증결과이다. 측정모델의 부합도는 <표 1>에 제시하였고, 측정모델의 측정변수에 대한 추정치나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과 같이 측정모델의 부합도는 GFI(=.94), RMSEA(=.06), CFI(=.98), NFI(=.96), NNFI(=.97)로 아주 높게 나타나 이론적 모델의 측정모델로 지지되었다.

<표 2>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은 다중 상관제곱치가 대부분 .6이상으로 양호하였다. 측정모델의 모수들에 대한 표준화 계수도 <표 2>에 제시되었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모수들

이 모두 적정수준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신뢰와 타당성이 있는 변수로서 설명이 분명하게 되었다.

각 변수의 측정신뢰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이론적 모델의 각 잠재변인과 그에 따른 측정변수간의 관계도를 일반화된 최소자승법(GL)으로 측정하였다. GL추정은 약하지만 다변량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세부적 지수들을 산출할 수 있다. 추정결과 표준오차는 매우 적고, 표준잔차의 중앙치가 .55고 대부분 3.00미만이었으며, <표 2>에서 제시한 바대로 모든 측정변수들의 T 값도 대부분 6.58에서 21.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결론적으로 주어진 관찰값에 기준하여 제안된 연구모델의 구조모델을 검증하기 앞서 모델정립에서 가정된 변수들과 잠재변인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됨으로써 12개의 측정변수와 5개의 잠재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기술해주는 측정모델이 성립되었다. 다음 단계의 분석으로서 잠재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설명해주는 구조모델에 대한 검증결과이다.

2. 이론적 모델의 구조모델 검증

이론적 모델은 최소자승법(G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델의 전반적 부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고, <표 4>에는 경로들간의 추정치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변인들간의 총체적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표 3>에 포함된 카이 자승 통계치는 모델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준다. 다른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들로 RMSEA는 .07, RMR은 .03, GFI는 .92, AGFI는 .88, NFI는 .95, NNFI는 .96, CFI는 .97으로 나타나 모델이 대체로 관찰값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 제시된 이론적 모델의 변인들간의 추정치와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이론적 모델의 전반적 부합도

(N=250)

모델	df	χ^2	χ^2/df	RMSEA	GFI	CFI	NFI	NNFI
모델	48	109.47	2.28	0.07	0.92	0.97	0.95	0.96

<표 4> 이론적 모델의 변수간 경로계수

From/To	추정치	표준화계수	T-value	SMC
가족 수입				
가족 내구력	-0.00	0.02	-0.20	0.35
누적 스트레스	-0.04*	0.00	-4.51	0.20
가족 적응	0.03**	0.01	2.07	0.77
가족 내구력				
가족 의사소통	0.89*	0.10	8.73	0.95
누적 스트레스				
가족 내구력	-1.75*	0.43	-4.04	
가족 적응	-0.62	0.37	-1.67	
가족 의사소통				
가족 적응	0.91*	0.12	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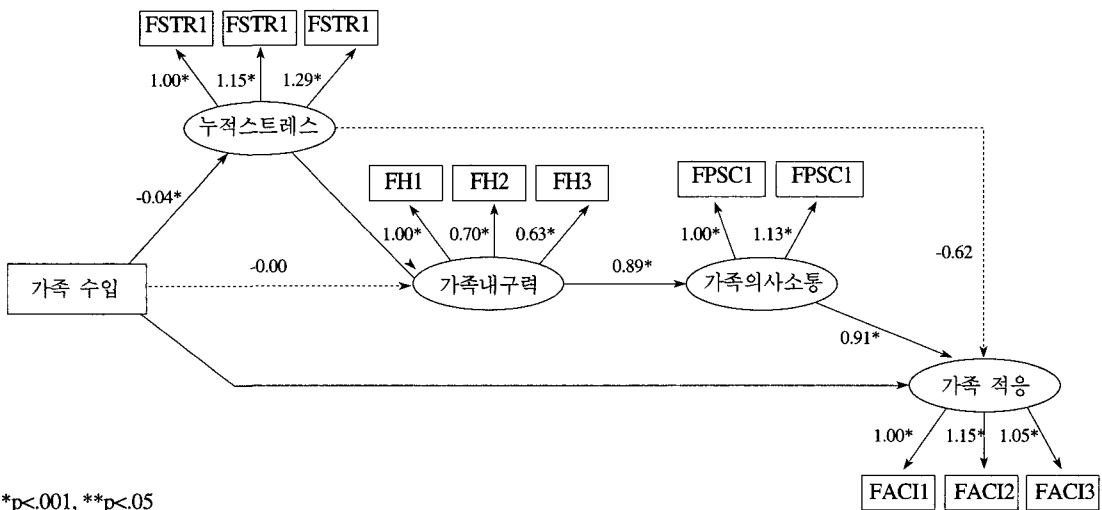
* p< .001, ** p< .05

모델에서 외생변수인 가족수입의 영향경로를 살펴보면 가족수입은 내생변수인 가족내구력에 .00으로 양(+)의 유의하지 않은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나 가족 적응으로의 영향은 .03으로 양(+)의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났고, 누적스트레스에는 .04으로서 음(-)의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그림 2>에서 제시된 연구자의 가정이 누적스트레스와 가족 적응에 대해서는 지지되었으나 가족 내구력에 대해서는

지지되지 못했음을 나타내준다.

모델에서 내생변수들간의 영향경로를 살펴보면 가족 내구력은 가족의사소통에 .89로 양(+)의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고, 누적스트레스는 가족내구력에 1.75로 음(-)의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연구자의 가정이 지지되었음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가족 적응에 대해서는 .62로 음(-)의 유의하지 않은 직접효과를 나타내 연구자의 영향에 대한 가정이 지지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의 가정이 이론적으로 지지되는 부분이 적다는 의미이다. 가족수입이 누적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누적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감소시켰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족 의사소통은 가족 적응에 .91로 양(+)의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나므로 연구자의 가정이 지지되었다.

이론적 모델의 잠재변인들 특히 내생변수가 낮은 SMC를 갖게 되면 그 내생변수의 중요한 예측변수들이 모델에 외재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낮은 SMC가 모델이 자료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순목, 1990). 왜냐하면 모델의 경로도형상에 하나의 변수로서 외재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예측 변수도 모델



*p<.001, **p<.05

<그림 3> 이론적 모델 검증

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생변수들의 SMC도 <표 4>에 함께 제시하였다.

내생변수인 가족내구력과 누적스트레스는 SMC가 각각 .35, .20으로 예측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적응과 가족 의사소통은 각각 .77, .95로 예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 이론적 모델의 수정

이론적 모델을 보다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을 하였다. 이는 이론적으로 간명하면서 경험적 자료에 대한 적당한 정도의 부합도를 보이는 모델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는 변인들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외생변수인 가족수입에서 내생변수인 가족 내구력으로의 경로와 내생

변수인 누적스트레스에서 가족 적응간의 경로에서 경로계수가 낮은 것부터 하나씩 제거하면서 모델의 부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수정된 최종모델의 변인들간의 총체적 관계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최종모델은 대체로 <표 5>에서 전반적 부합도가 모두 양호하여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최종모델은 가설적 모델을 간명화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수정모델2를 채택하였다.

세부적 지수로 살펴본 변인들간의 경로는 다음 <표 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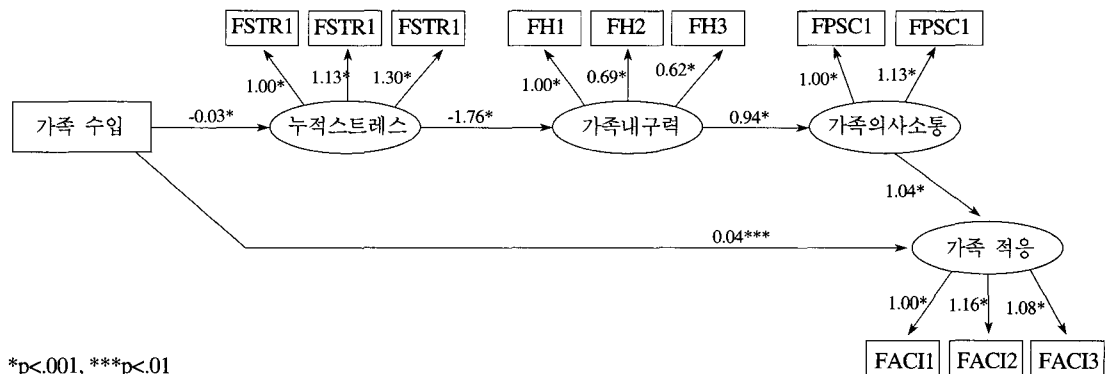
외생변수인 가족수입에서 내생변수인 누적스트레스에 .03으로 음(-)의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고 가족 적응으로의 경로계수는 .04로 양(+)의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내생변수인 가족 내구력은 가족의사소통에 .94의 양(+)의 유의한 직접

<표 5> 수정모델들의 부합도 비교

(N=250)

모델	df	χ^2	RMSEA	GFI	AGFI	PGFI	PNFI	Fixed Path(From/To)
가설적모델	48	109.47	0.07	0.92	0.88	0.57	0.69	-
수정모델1	49	109.51	0.07	0.92	0.88	0.58	0.70	가족수입/가족 내구력(Fixed)
수정모델2 (최종모델)	50	111.90	0.07	0.92	0.88	0.59	0.72	누적스트레스/가족적응(Fixed)

주) AGFI(Adjusted Goodness Fit Index): 조정 합치도, PGFI(Parsimonious Goodness Fit Index): 간명 기초 합치도,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간명 표준 합치도.



*p<.001, ***p<.01

<그림 4> 최종 모델

〈표 6〉 수정모델2의 변수간의 경로계수

From/To	추정치	표준화계수	T-value	SMC
가족 수입				
누적 스트레스	-0.03*	0.00	-4.59	0.20
가족 적응	0.04***	0.01	3.20	0.77
가족 내구력				0.36
가족 의사소통	0.94*	0.10	8.77	1.02
누적 스트레스				
가족 내구력	-1.76*	0.37*	-4.74	
가족 의사소통				
가족 적응	1.04*	0.11*	9.29	

* p<.001, *** p<.01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내생변수인 누적스트레스는 가족 내구력에 1.76의 음(-)의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고 가족의사소통은 가족 적응에 1.04로 양(+)의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다른 세부적 지수인 SMC도 〈표 6〉에 함께 제시하였다. 내생변수인 가족의사소통이 1.02으로 가장 예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내생변수인 가족 적응도 .77로 예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았다. 수정모델에서 T값으로 살펴본 외생변수인 가족수입의 내생변수인 가족 의사소통, 가족 적응, 누적스트레스, 가족 내구력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각각 4.55, 5.84, -4.59, 4.58이었다. 이 중에서 가족 적응에 대한 가족의사소통과 가족 내구력의 영향은 모두 다 간접효과이고 누적스트레스만이 모두 다 직접효과이다. 최종 결과변수인 가족 적응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가족문제해결 의사소통이 .92로 거의 다 직접효과이다. 가족 적응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가족내구력 8.27, 누적스트레스는 -4.62로 모두 다 간접 효과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아동가족의 가족수입, 가족의 적응의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누적 스트레스, 가족의 적응의 완충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족 내구력, 가족 의사소통과 가족 반응 결과인 가족 적응과의 총체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가설적 모델을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설정된 가설적 모델의 전반적 부합도는 높게 나타났다. 즉 관찰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 지수로 살펴본 변인들간의 관계는 외생변수인 가족 수입이 가족 내구력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Smith(1998)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이론적으로 지지되는 부분이 적다는 의미이고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Kobasa(1979)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력있는 중재요인의 하나로 가족내구력을 제안하고 있다. Huang(1996)이나 Vansolkema(1997)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족 내구력은 가족의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내구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 대처가 더 잘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제까지 장애아동의 존재가 가족의 적응이나 복원력에 위협요인은 될 수 있으나 모든 가족의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McCubbin과 같은 가족복원력 학자들의 견해이다. 가족 내구력은 가족 적응의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누적 스트레스와 또 다른 완충요인인 가족 의사소통과 결합하여 가족 적응이 더 잘 되도록 한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졌다. 이는 McCubbin과 McCubbin(1993)의 이론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며 오승아와 이양희(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외생변수인 가족 수입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는 가족 수입과 누적 스트레스, 가족 내구력, 가족 의사소통과 결합하여 가족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적 스트레스, 가족 내구력, 가족 의사소통의 중재역할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아동 가족의 긍정적인 적응특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족 수입, 가족 내구력 그리고 가족 의사소통이 가족 적응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으로서 확인된 일련의 연구(Huang, 1996; Kobasa, 1979; Kobasa, Maddi & Kahn, 1982; McCubbin, 1989; 1993; 1994; 1995; Smith, 1998; Vansolkerna, 1997)들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또한 재정 자원으로서 가족 수입은 가족의 누적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지만 가족내구력이나 가족 의사소통과 같은 완충요인과 결합하여 긍정적인 가족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

가족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논의되어온 것들은 변인들간의 상대적 중요도의 확인과 변인들간의 영향경로에서의 방향성이었다. 그러나 연구분석기법의 발달로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즉 변인들간의 총체적인 인과관계의 구조확인이 가능한 공분산 구조분석을 소개하고 실제적인 활용도와 함께 이론모델의 검증을 통한 모델개발과정을 제안해주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가족연구의 이론적, 방법적인 면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긍정적인 가족 적응 즉 가족 복원력과 관련된 취약성과 완충력과 같은 개념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 또한 의미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공분산 구조분석법은 여러 가지 변인들의 관계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많은 수의 연구대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 구조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구대상수(250가족)를 사용하였다.

둘째, 구조모델검증시에는 측정변수들이 변인들간의 경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인문과학에서 사용하는 질문지를 통한 변인측정은 모델의 부합도나 이미 이론적으로 강력하게 지지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지지되는 부분이 적으므로 가정을 기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측정도구는 질문지와 아울러 면접과 같은 질적인 부분의 내용도 함께 다뤄져야 유의미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복원력을 측정하는 도구개발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위험원이 있는 가족들이 긍정적인 적응, 성공적인 적응을 하도록 돕는 예방·중재프로그램을 위한 평가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종단적 연구를 통해 위험원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바람직한 적응의 결과가 유지되는 긍정적·성공적 적응의 안정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양병화(1998). 다변량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오승아, 이양희(1999). 장애아동가족의 resilience 관련 요인척도개발.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6(2), 21-48.
- 오승아, 이양희(2001). 장애아동가족의 복원모델연구. 아동학회, 22(2), 113-132.
- 이경희(1992). 장애아동의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의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양희(1993).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의 심리적 적응 방법. 인문과학(23),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윤이화(1997). 정신지체인 가족의 적응.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목(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양서원.
- 정원미(1994).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 기능에 관한 연구: Circumplex model을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Cowan, P. A., Cowan, C. P., & Schulz, M. S. (1996). Thinking about risk and resilience in families. In E. M. Hetherington & E. A. Blechman(Eds), *Stress, Coping, and Resiliency in Children and Families*(pp. 1-38). NJ: LEA.
- Failla, S. & Jones, L. C. (1991). Famil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 examination

- of family hardines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4, 41-50.
- Goldstein, M. (1990). Family relations as risk factors for the onset and course of schizophrenia.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pp. 408-423).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as, D. L.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dispositions and power components of depend-care agency in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 Huang, C. F. (1996). *Famil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test of a structural model of family hardiness, social support, stress, coping, and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int Louis.
- Joreskog, K. G. & Sorbom D. (1999). *Interactive LISREL: User's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 Kosciulek, J. F., McCubbin, M. A., & McCubbin, H. I. (1993). A theoretical framework for family adaptation to head injury. *Journal of rehabilitation*, july/august/september, 40-45.
- Marcoulides, G. & Hershberger, S. (1997).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A first course*. Mahwah, NJ: Lawrence Erlbaum.
- McCubbin, H. I., McCubbin, M. A., Thompson, A. I. & Thompson, E. A. (1998). Resiliency in ethnic families: A conceptual model for predicting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H. I., McCubbin, E. A., Thompson, A. I., Thompson & J. E. Fromer(Eds.), *Resiliency in native American and immigrant families*(pp 3-48). California: Sage Pub, Inc.
- McCubbin, H. I., Thompson, A. I. & McCubbin, M. A.(1996).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 McCubbin, H. I., Thompson, A. I., Thompson, E. A. & McCubbin, M. A. (1994). Ethnicity, schema, and coherence: Appraisal processes for families in crisis. In H. I. McCubbin, E. A. Thompson, A. I. Thompson, J. E. Fromer(Eds). *Sense of coherence and resiliency: Stress, coping, and health* (pp. 41-67). WI: The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 McCubbin, M. A. & McCubbin, H. I. (1993). Families coping with illness: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C. B. Danielson, B. H., Bissell, & P. W., Fry. *Families, health & illness: Perspectives on coping and intervention*(pp. 21-63). St. Louise: Mosby-Year Book, Inc.
- Mooradian, J. & Grasso, A. (1993). The use of on agency-based information system in structural family therapy treatment. *Child and Youth Service*, 16, 49-74.
- Smith, M. G. (1998). *The Etiology of child neglect: A structural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waii University, Ann Arbor.
- Vansolkeman, J. M. (1997). *Stress, coping, adaptation and family hardiness in families with an adult child who is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living in the parental ho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rand Valley State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부 록>

최종모델의 구조모델

Da NA=12 NO=250 MA=CM

LA

FPSC1 FPSC2 FACI1 FACI2 FACI3 FSTR1 FSTR2 FSTR3 FH1 FH2 FH3 INCOME

CM SY

0.2665

0.1972 0.3764

0.1471 0.1724 0.4326

0.1910 0.1920 0.2933 0.4550

0.1675 0.1970 0.2450 0.3089 0.4958

-0.0384 -0.0348 -0.0769 -0.0527 -0.0393 0.0876

-0.0241 -0.0252 -0.0644 -0.0725 -0.0394 0.0358 0.1311

-0.0266 -0.0329 -0.0720 -0.0621 -0.0460 0.0307 0.0430 0.1073

0.1581 0.1873 0.1950 0.2121 0.2153 -0.0378 -0.0317 -0.0274 0.2956

0.0854 0.0920 0.1741 0.1345 0.1224 -0.0554 -0.0754 -0.0714 0.1036 0.3833

0.0833 0.0902 0.0804 0.1187 0.1512 -0.0181 -0.0477 -0.0417 0.1031 0.1340 0.3826

0.1813 0.1493 0.2947 0.3350 0.3061 -0.0723 -0.0874 -0.2035 0.1158 0.1286 0.1583 2.9728

MO NX=1 NK=1 NY=11 NE=4 PH=SY, FR PS=SY, FI LX=ID LY=FU, FI GA=FU, FI BE=FU, FI TD=ZE

TE=SY, FI

FR LY 2 1

FR LY 4 2 LY 5 2

FR LY 7 3 LY 8 3

FR LY 10 4 LY 11 4

FR GA 2 1 GA 3 1

FR BE 1 4 BE 2 1 BE 4 3

FR PS 1 1 PS 2 2 PS 3 3 PS 4 4

FR TE 1 1 TE 2 2 TE 3 3 TE 4 4 TE 5 5 TE 6 6 TE 7 7 TE 8 8 TE 9 9 TE 10 10 TE 11 11

VA 1,0 LY 1 1 LY 3 2 LY 6 3 LY 9 4

PATH DIAGRAM

OU ME=GL MI EF SS AD=OFF IT=6000 ND=3

END